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놓고 시끌

교수회의 해양국립대로 변경 결정
목포시 “목포” 지역명 빼지 말라”
교육부에 1만 3000명 서명부 전달
대학 “위기 극복 대안 없이 반대만”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 변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인구 감소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목포시는 목포 지명을 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립 목포해양대는 최근 교육부에 ‘해양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 신청을 했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교명 변경 투표 결과 55%의 찬성으로 해양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목포해양대는 100만명이 넘는 학생인구가 40만까지 내려가 지방대학 수백 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교명 변경을 추진했다. 목포에 세계적인 해양대학이 생길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

권에 도움도 요청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목포해양대학교 교명 변경 신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명 변경을 추진하는 목포해양대학교에 ‘목포’가 교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대학이 교육부에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목포해양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25일 교육부를 방문해 교명 변경 반대 의견서 및 시민 1만3000여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시는 목포해양대 동문회 등과 함께 교명 변경 반

대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와 함께 성장해 온 목포해양대학교가 지역명을 지워버리는 것은 70년 동안 지켜온 학교의 명성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지역명을 빼는 교명 변경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대는 “목포시가 목포 명칭을 빼는 것을 탓할게 아니라 그동안 지역 대학과 상생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해양대학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지방대학 소멸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1952년 독립 목포상선고등학교로 출발한 목포해양대학교는 7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 고등기관으로 전국 국립대 취업률 1위다. 2만여명의 해사-해양 분야 전문인력 배출 등 특성화 대학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한편 교육부가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치는 만큼 교명 변경 승인까지는 3~5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25일 목포 유달조선소를 방문한 김준성 영광군수(왼쪽 다섯 번째)가 ‘칠산누리호’ 건조 과정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다목적 지도선 ‘영광 칠산누리호’ 10월 취항

영광군 47억원 들여 56t급 건조

영광해역에 다양한 해양수산·행업무를 수행할 최신허터 추진 방식의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든다.

영광군은 영광해역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해양 오염, 유행생물에 의한 해양재난 감시·대응, 어민과 도서민 지원 등에 투입될 ‘칠산누리호’가 오는 10월 취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칠산누리호는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해 총 47억원을 투입해 현재 목포 유달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다.

이 선박은 선령 26년의 노후된 어업지도선 전남 205호를 대체해 투입된다.

칠산누리호는 길이 27.5m, 폭 5.5m로 기존 어업지도선보다 2배 이상 크다.

위터넷 추진기를 적용해 최고속력이 30노트(시속 약 56km)에 이른다. 총 톤수 56t의 선체는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항해 성능과 복원성 향상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5일 목포 유달조선소를 방문해 칠산누리호 건조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술진을 격려했다.

영광=이준원 기자 jylee@kwangju.co.kr

완도 수산물 코로나 장벽 뚫고 태국 수출길

완도 수산물이 코로나19 장벽을 뚫고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

완도군은 완도를 농공단지외 위치한 (주)해정정에서 ‘완도 우수 수산물 가공품 태국 판촉 프로모션’을 위한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냉동 전복과 전복 차우더(수프), 다시마 국수, 유자청, 곱창 김, 미역 등 약 7000만원 가량의 완도 수산물 식품이 태국 방콕으로 간다.

태국 판촉 프로모션은 지난 4월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2021 완도 가정대용식(HMR) 온라인 수출상담회’ 당시 태국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이 됐다.

계약 물량이 매월 순차적으로 선적되고 있다. 군은 용남야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태국 판촉 프로모션’을 기획·지원에 나섰다.

오는 9월과 10월에 걸쳐 총 2차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프로모션에 참여할 완도군 기업은 총 6개소다. 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외 판촉전 지원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증대·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진도군수 직인 58년 만에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

진도군수 직인이 58년 만에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됐다.

진도군은 알아보기 어려웠던 ‘한글전서체’의 진도군수 직인을 끈고 바른 한글체인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1963년부터 사용한 진도군수 직인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변경했다.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취지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원형에



가깝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바꾼 것이다.

진도군은 군수 직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장, 읍·면장, 민원사무전

용, 회계 관계 공무원 등 총 204개 전체 공인을 모두 변경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놀거리 풍부...누림문화센터 있어 즐거운 해남 청소년

개관 한달만에 2300여명 이용
댄스실·북카페 등 9개 공간 마련
청소년 문화활동 보금자리 역할

해남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청소년 문화 여가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지난 7월 13일 개관 후 한달여 만에 23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공간 확보에 특목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해남읍 해리에 신축한 건물로 1층은 해남시네마, 2·3층은 청소년 대상의 복합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실과 교육실 등 총 9개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넓은 공간에 거울·음향장비를 갖춘 댄스 연습실과 각종 악기와 노래방 기기, 녹음시설이 있는 단체연습실, 만화책 800여권과 일반도서 1000여권을 보유한 북카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은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웠던 강의를 중심으로 9개 정기 강좌를 개설, 무료 운영한 가운데 8월부터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말 콘텐츠 강화를 위해 4개의 1일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먼 지역의 원거리 청소년 등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월에 시작되는 가을 정기강좌는 16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이 자신들이 키운 화분을 들여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가족단위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적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추진, 지난 7월 개관했다.

특히 최신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농촌지역 청소년 기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은영화관과 청소년센터를 연계해 건립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침체된 원도심 경제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했던 청소년들이 수준높은 문화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미래 인재에 필요한 창의성을 계발하는 산실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시설투자과 함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